



박소현의 섹.시.토크

결혼 7년차인 S. 그녀의 결혼생활은 그러저러 행복한 편이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S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에 비해 많이 쳐지는 머리를 얻었다는 생각은 7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아서 시시콜콜 간섭을 하고 야단을 치며 머리를 잡으려 했다. 시어머니와의 불화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정작 남편은 세세한 사정을 몰랐다. 그 역시 우리 부모만한 시댁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는 한국의 보통남자들과 다를 바 없었기에, 문제를 토로해도 결론은 늘 너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자세한 사정을 밝히기 보다는 투덜거리는 것으로 일관해 온 S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남편과 시댁문제로 언성을 높인 날이면 S의 눈에 남편은 내 남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날, 남편과 잠자리를 한다는 건 그야말로 힘든 일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오히려 좀 전에 다툰 것을 풀이할 요량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일쑤였다. 화가 안 풀렸다는 핑계로 밀어내자니 싸움이 깊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섹스를 하거나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속상할 일이 생겼다. 자주 전화를 안 한다고 불만이 많던 시어머니가 작정을 하고 전화를 해서 한바탕 사담을 낸 것이다. S는 그날 초저녁부터 눈물바람을 해야 했다.

문제는 그날 밤 퇴근한 남편,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그저 엄마에게 잔소리를 좀 들었더니 생각한 그는 또 S의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열심히 이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S의 눈에 비친 남편은 정말 미운 시어머니를 그대로 빼다 박은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섹스를 하고 싶을 리가 없었다. S는 평소와는 달리 매우 강하게 남편을 밀쳐냈다.



“하기 싫는데 왜 이래? 꼴도 보기 싫으니 가지러 가.” 말해놓고 나서 좀 심했구나 생각은 했지만 이미 남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날 이후부터였다. 남편이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화난 상태라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러저러 화가 풀리고 사이가 좋아진 뒤에도 잠자리

의 썰렁함은 가시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도록 관계가 없자 S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자신심을 꺾고 먼저 접근을 해 보았다. 뒤에서 슬쩍 안기도 하고 제법 진한 스킨십까지 시도했지만 남편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피곤하다고 돌아놓거나 갑자기 TV를 본다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버렸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고부 갈등이 유발한 남편의 잠자리 피하기 스킨십·잠자리 바꾸기... 갖은 유혹에도 꿈쩍 안해

그렇다고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평소엔 아이들과 장난도 잘 치고 S에게도 다정하게 대했다. S의 생일이 돌아오자 평소 갖고 싶었던 가방도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도 사 주었다. 그런데 피곤하다, 졸리다, 혹은 먼저 자는 것 하는 것으로 교묘히 잠자리를 피해가고 있었다. 이대로 사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 S는 정면승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내 남자 VS 어머니 아들

“이야기 좀 해.” 예들을 일찍 재운 날 밤, 술상을 받아놓고 남편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러지 뭐.”하고 응수했다. “자기 나한테 화 많이 냈어?”, “아니.” “그럼 왜 그래?”, “뭐?” “왜 잠자리를 거부해?”, “거부한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래. 당신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그래?”

대화가 되지 않았다. 남편의 마음은 아직 콩콩 열어 있는 것 같았다. 이 남자가 이렇게 뒤끝 있는 남잔지 몰랐던 사실이 후회되었다. S는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그날 밤, S는 아이들 방에 걸려있던 가족사진을 침실로 옮겨왔다. 가족사진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댁식구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침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그 사진을 걸고 잠자리에 누웠다. 시어머니가 뻔히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그래,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일 뿐이야.” 모든 욕구가 단번에 가셔졌다. 잠자리를 원하지 않는 남편과 살라면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무래도 S부부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검색절정 키워드

이번 주 인터넷 세상은 축구 선수들이 휩쓸었다. 스타트는 부상소식이 전해진 '축구 천재' 박주영이 끊겼다.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중국전에서 멋진 프리킥 골을 성공시키며 최상의 골감독을 선보였던 만큼 네티즌의 관심이 뜨거웠다. 박주영은 왼쪽 허벅지 근육 통증으로 북한과의 대결에 결장했고, 일본전 출전도 불투명해 축구팬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북한 최고의 스트라이커 정대세에게도 관심이 쏟아졌다.

기쁨과 슬픔 함께 준 축구선수

지난주 '낙테 스캔들'로 축구대표팀에서 중도하차한 황재원도 다시 한 번 네티즌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황재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고, "물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진 것이 없는 만큼 비판은 자제합시다"라는 의견을 울리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심경을 밝힌 포항 스틸러스의 황재원.

Go board diagram for the '광주유단자와 전남대 오로회 1부(1~9) 대항전' section, showing a 19x19 board with numbered stones.

Text content for '광주유단자와 전남대 오로회 1부(1~9) 대항전', including details about the match and the players involved.

Text content for '바둑소식' section, discussing Go board news and the '바둑도 심판복 입는다' headline.

리빙 센스 (Living Sense) section titled '가습기 관리하기' (Humidifier Management), providing tips on how to use humidifiers correctly.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2일(음 1월 16일 壬戌))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2008, featuring zodiac signs like '子', '丑', '寅', etc., and corresponding fortune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o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product information.

Grammar lesson '굿모닝 잉글리쉬 <1102>' with a reading passage 'Isn't time for her to get a job?' and multiple choice questions.

Grammar lesson '오하오우 니혼고 <1102>' with a reading passage in Japanese and corresponding questions.

Grammar lesson '니하오 쑹구위 <79>' with a reading passage in Chinese and corresponding questions.

Grammar lesson '한자 이야기 <689>' with a reading passage in Korean and corresponding questions.